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8, 요한계시록 21장 새 창조와 신부 새 예루살렘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28과 요한계시록 21장 새 창조와 신부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과 1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의 새로운 국면, 즉 마지막
절정의 환상을 시작합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일종의 전환의 마지막 장면, 즉 신부 새 예루살렘의
소개를 위한 일종의 장면이라고 했지만. 9절, 21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21절,
9절부터 22절, 5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개될 가장 중요한 주제와 개념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소개된 주제가 배경을 제공합니다. 1절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종합적인 심판의 장면에서 모든 것이 제거되었으니 새 창조가 도래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면 21장의 처음 여덟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로 예비하고 그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하였느니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사시리라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옛 질서가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라. 그는 나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어 마시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제 1절은 구약성서에 대한 암시로 시작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이 문구 뒤에 있는 주요 본문은 이사야 65장과 17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맥락에서, 그러나 그들의 망명에서 육체적으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창의적인 행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5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할 것이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지난 고난이 잊혀지고 네 눈에 숨겨지리라.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전 일은 기억되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어서 이르되 내가 창조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창조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그 백성도 즐거워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1절의 새 창조의 소개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2절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소개합니다. 따라서 1절은 분명히 이사야 65장과 17장에서 예언한 것의 최종 성취입니다. 이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1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3장을 통해 이것이 파괴되고 해를 입었고 좌절되고 혼란에 빠졌으며 이제 피조물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은 아마도 원래의 창조 행위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과 멸망과 죄와 악을 가져온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버리지 않으시고,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창조 행위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은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아마도 하늘과 땅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20장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는 이것을 엄밀하게 지리적, 물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땅은 사탄과 짐승들의 지배 아래 있는 곳, 땅은 그들이 해를 끼치고 황폐시킨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곳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사야 65장으로 돌아가 보면 새 창조가 단지 지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열매 맺는 곳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완전한 정의가 있는 곳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않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새 창조는 물리적, 지리적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창조에 대한 사탄의 통치와 지배와 대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에는 정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평화가 승리하고, 모든 폭력과 유혈과 억압이 제거되는 새 창조가 있습니다.

이제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이것을 무로부터의 새로운 창조, 즉 무로부터의 창조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변화와 갱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기초하여, 그리고 아마도 계시록에 기초하여 우리가 새 창조와 이전 창조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즉, 여기에서 사용된 새롭다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이 창조의 질적 새로움과 원래 창조에 대한 이 창조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아마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모두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창조물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파괴와 새로 시작이 아니라 현재 창조의 변화와 갱신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창조는 완전히 개량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이 사탄의 지배와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현재 땅과 질적으로 다른 새 땅 사이의 연속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상징되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파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처음 땅이 보좌를 떠나서 간 곳이 없더라. 이제 21장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완전히 새로운 창조 행위로 이 현재 창조의 갱신과 변화, 완전한 개편을 상징하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의 죄와 악과 죽음의 모든 파괴적인 영향과 사탄과 그 아래 있는 짐승이 행한 해로움이 제거됩니다. 땅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이제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풀려나 새로운 창조적 행위로 변형되고 갱신되었으며, 존은 이제 그것을 봅니다. 나는 또한 이것이 21:1절에서 시사하는 바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과 마지막 때와 목적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관해 암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장 1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 목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빨리 천국에 가거나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사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4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장 1절은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이 아니라 땅임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종종 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주일학교 교사가 그들 중 누구도 천국에 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고, 그녀는 제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이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속담에 대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이 이미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속담이 구름 위에서 하프를 들고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보다 더 지루한 존재, 즉 하프를 연주하고 흰 옷을 입고 떠다니는 어떤 일시적인 육체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어떤 운명인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끝나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든 하늘의 육체가 없는 영적 유형의 존재를 달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세기, 2세기, 3세기의 영지주의였습니다. 대신 창세기 1장과 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적인 땅에 사는 물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상태에서 일시적인 영적 존재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역사의 궁극적인 절정과 목표에 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의도는 우리가 하프와 구름을 타고 하늘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를 새로운 물리적 땅에 안착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0장의 육체적 부활로 일으킴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물리적 창조물인 새 땅 위에 등장합니다.

나는 한 사람이 전형적인 복음주의 태그라인에 대해 누군가가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에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일치했습니다. 주된 운명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천국이란 어떤 허공에 떠 있는 일시적이고 육체가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운명은 분명히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의도, 즉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목표로 인도하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요한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가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이유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사야 65장에는 바다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대한 언급도 충분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는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까? 두가지. 우선, 바다는 단순히 땅, 하늘, 바다의 세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이 아니라, 우선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바다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장에서 그곳은 죽은 자들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형상인 첫 번째 귀신 짐승인 바다 괴물이 올라오는 곳이기도 하며, 바다 역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분명하게 무저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오다가 바다에서 나오므로 바다는 악, 혼돈, 해악,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다 괴물이 사는 곳이에요.

구약성서에는 뱀이나 용, 또는 악과 혼돈의 장소인 바다와 관련된 이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옮겨진 이유는 바다가 모든 악과 고통과 혼돈과 무질서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의 지배를 받는 첫 창조의 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심연. 그러므로 바다는 혼돈, 악, 죽음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백성에 적대적인 바다 괴물의 본거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다일 것이다.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나중에 4절에서 요한은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옛 질서가 지나갔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아마도 첫 창조에서의 고통과 애도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다가 제거될 것입니다. 왜? 바다는 사람들이 온전한 기업과 온전한 상급과 구원을 향유하는 데 장벽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거되었습니다. 바다는 문자 그대로 바다나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바다 괴물의 집이자 더 많은 곳으로, 첫 창조의 애도와 울음,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여기서 바다를 제거한 바다는 출애굽 모티브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사악하고 악한 제국인 로마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와 악한 제국들에 내리신 재앙은 출애굽기의 재앙(8장, 9장,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입니다(16장). 15. 나는 이것이 출애굽 모티브에 대한 암시를 더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곳의 바다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9절로 돌아가면, 아니면 미안하게도 이사야서 51장 9절로 돌아가면 바다, 즉 홍해가 혼돈의 괴물, 바다 괴물. 흥미롭게도 나는 그 본문의 아람어 번역이 실제로 이사야 51장 9절의 괴물을 바로로 식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에 나오는 원래의 홍해가 악의 바다와 연관되어 있듯이 여기서 바다는 상징적으로 혼돈과 악의 홍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다른 곳, 이사야서 40-66장의 다른 곳에서는 출애굽 모티브의 일부로 물을 말리는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40-66장은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미래에 구원하실 것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혼돈, 악, 해악을 상징하는 이사야 51장 9절, 바다, 바다의 제거, 홍해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롭습니다. 출애굽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사야와 최초의 출애굽 사건의 성취에서 우리는 혼돈과 악과 해악과 고통과 고통을 상징하는 종말론적 홍해를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제 종말론적 홍해는 말랐다. 요한은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유업, 약속의 땅, 즉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해의 제거가 출애굽 모티브의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은 이사야서의 두 번째 특징인 65장을 소개합니다.

이사야는 새 창조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도 예상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묵시적인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65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4장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54장과 11절과 1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 즉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뒤를 이어 예루살렘이 새 창조의 일부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새 창조에 관해서도 요한은 신부가 그녀를 위해 단장한 것으로 묘사하는 환상에서 벗어납니다. 남편은 19장으로 돌아가서 혼인 잔치 이미지와 신부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21장 9절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신부에 대한 묘사를 소개하고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미 2절에서 언급한 새 예루살렘 신부를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21:9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저자는 이제 목소리를 듣는 오디션으로 전환하고, 내 생각에 오디션이 할 일은 기본적으로 처음 두 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신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언약 공식을 언급하면서 3절에서 시작됩니다. 3절에서 음성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는 그들과 함께 살 것이며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26장과 11절과 12절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서도 볼 수 있는 일종의 구약 언약 공식에 대한 요한 버전입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순서대로 따르는 본문인 이제 37장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암시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그리고 37절과 27절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백성의 회복을 기대하는 맥락에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저자는 2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 수를 늘리리라.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리라. 하나님의 거처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주목하십시오(계 21:3). 그러면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열방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요한은 이제 에스겔이 기대했던 새 언약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새 언약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고 상상합니다. 차이점은 레위기 26장과 에스겔 37장에 있습니다.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의 회복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부족과 언어와 언어의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일종의 언약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절은 아름답게 치장된 신부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언약 또는 일종의 언약의 말씀, 즉 3절에서 말하는 결혼 언약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이것이 성막과 관련하여 레위기 26장에도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 다음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마지막 때에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그 거처를 묘사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시작되는 역할을 할 본문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계시록의 순서와 언약의 공식을 따르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막 성전을 기대하며, 이는 21:9부터 22:5까지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으로 묘사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성취에 나타난 사람들. 4절은 4절을 요약하고 1절과 2절의 의미를 더 설명하며 구약성서에 나오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다시,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이사야서에 나오는 더 이상 죽음과 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최종 완성을 묘사하기 위해 구약성서의 본문, 특히 이 시점에서는 이사야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읽은 한 논평에서는 약간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상당한 정확성과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구약의 환상을 모두 제거한다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마지막 비전을 구성하고, 그가 본 것을 해석하기 위해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마지막 비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완성이자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내용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은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하여 새 창조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즉, 기존 질서를 특징짓는 모든 것이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과 이 창조물이 모든 죄의 영향과 모든 악의 영향,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든 것,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제거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고통, 우리에게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것이 4절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제거되고 닦아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환상의 다소 감동적인 감정적 부분이며, 때때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성을 볼 때 일종의 마지막 정화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마지막 카타르시스입니다.

나는 그것이 전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눈물은 1차에 속해 있었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다. 사탄과 짐승의 지배를 받은 자들의 고통과 눈물.

이 세상의 손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 겪은 이들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도 다 죽었으니 땅에 속한 것들도 다 죽었느니라. 이제 고통과 울부짖음과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부터 넷까지 요약하여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사야에 대한 또 다른 암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흥미롭게도 새로운 출애굽의 맥락에도 등장합니다. 돌아가서 43장 19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새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유업으로 데려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출애굽의 새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합치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경건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악한 제국인 로마 제국의 속박과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염병 출애굽 행위를 통해 계시록 8장과 9장의 재앙 심판, 16장의 재앙 심판처럼 하나님은 억압적인 로마제국과 억압적인 신이 없는 세상에 심판을 쏟아 붓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악한 나라와 악한 제국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장벽이 된 악과 혼돈과 고통과 고난의 종말론적 홍해를 말리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상속 재산, 약속의 땅, 즉 새 창조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는 지배적인 방식 중 하나는 첫 번째 출애굽을 모델로 한 새로운 출애굽의 모티브를 통해서입니다.

6절부터 저자는 요한이 본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신부인 1절과 2절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해석하는 구약성경의 여러 본문을 다시 한 번 끌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제목을 반복하기 위해 제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가 역사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창조 이전에도, 창조의 마지막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시작과 끝에서 있는 분으로서 그는 이제 창조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최종 목표로, 즉 새로운 창조적 행위로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과 4장에서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창조의 시작과 끝에서 계신다. 이제 창조의 마지막에 그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에게 내가 값 없이 물을 주리라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도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강조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책의 나머지 부분을 고려하면 비용 없이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6장의 로마제국 하에서의 엄청난 상품 가격과 대조적으로, 과시적인 부와 엘리트 부자들과 화물에 대한 특권을 부여한 18장과는 대조적으로, 상인들이 부자가 된 화물에 대한 언급은 이제 대조적입니다. 흔히 부자에게 유리했던 로마의 착취적인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당신은 새 창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7절에서 이기는 것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즉, 이제 21장과 22장은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과 보상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타협을 거부하고,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며, 짐승을 따르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신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식으로 이긴다면 그들은 21장과 22장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이기면 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상속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21장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성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마지막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은 새 피조물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뭐야? 이 구절을 통해 21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 새 예루살렘 신부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관련된 땅을 상속받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땅을 상속받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그들이 상속받는 또 다른 것은 7절의 또 다른 특징을 끌어내는 것인데,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다윗의 언약 공식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다윗이나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새 창조를 상속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참 자손 메시아로서, 다윗의 언약 형식에 참여하고, 약속의 언약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유다 지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요 주제, 특히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신부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구약 본문에 비추어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장 9절에서는 2절에서 본 새 예루살렘 신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21장과 9절부터 우리는 일곱 천사 중 하나를 읽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할 곳이에요.

이것은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을 소개하는 입문 공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부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 주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라.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 광채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았고 벽옥과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개의 문이 있었고, 그 문에는 12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은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는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측량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너비만큼 정사각형처럼 배치되었습니다. 그가 그 막대기로 그 성을 측량한즉 만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가 약 1,500마일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그 두께가 사람의 측량으로 144큐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측량입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 유리 같더라. 나는 바로 거기에서 멈출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계속해서 읽을 것입니다. 존은 계속해서 도시의 구성과 도시의 건축적 특징을 둘 이미지의 관점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21장 9절과 10절에서도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읽는지,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듣고 보는 또 다른 예가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차이.

기억하세요, 요한은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승리한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양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요한이 듣는 것이 144,00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이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듣는 것은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어린양의 신부를 백성 그 자체로 이해한다면, 19장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소개된 내용을 덧붙여 말하면, 신부는 스스로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과 같은 다른 신약성경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스라엘을 야훼의 신부, 아내로 묘사한 구약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어린양의 신부를 백성 그 자체로 이해한다면, 여기 9장과 10장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과 동일시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10절에서 보는 것과 나머지 부분에서 보게 될 것과 그가 측량할 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므로 나는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고 온전해진 하나님의 백성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 창조에는 도시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요한이 도시를 의도할 수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무엇보다도 요한이 묘사하려는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을 상징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도시 건설에 대한 실제 건축학적 설명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더 강조하는 점은 본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새 창조 안에서 완결되고 완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자신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새 예루살렘은 본문 전체에서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것을 추가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 자신을 상징하는 신부 새 예루살렘 성전은 21장에서 요한의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집중하고 싶은 것은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묘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나 조금 뒷받침하자면 11장부터 21장까지의 21장의 9절과 10절은 일종의 비전에 대한 서문입니다.

그러면 21장의 나머지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시작하는 한 부분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적 특징, 즉 치수, 보석, 건축 자재에 따른 새 예루살렘의 구성입니다. 그런 다음 22장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부분을 통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그곳에 누가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발견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11절부터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의 건축적 묘사와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종류의 11장부터 21장까지, 특히 11장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는 장소로 분명하게 묘사된다는 점이다.

11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집니다. 그 광채가 벽옥과 같고 수정처럼 맑고 귀한 보석 같더라.

벽옥과 수정처럼 맑은 단어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4장에서 본 돌 중 하나이며, 하늘이 이제 땅과 합쳐졌음을 더욱 암시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으로, 벽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스겔서 21장부터 시작해 40장부터 48장까지의 설명이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40~48장에서 에스겔이 새 성전, 회복된 성전을 보고 천사가 그것을 측량하고 세밀하게 측량하며 성전의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대한 모델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는 도시 구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와 그 구성은 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람들 자신을 상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요한은 보석과 돌에 관한 이 언어를 찾아내고, 나중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에는 없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돌을 찾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글썄, 그는 다른 구약성경 본문에서 보석과 관련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발견했으며 아마도 묵시적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녹전서나 다른 곳과 같은 묵시적인 본문의 일부 기록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때때로 돌처럼 빛나거나 보석이나 돌들과 같은 용어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성서 자체에서 많은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 본문 중 하나가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가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54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대하는 본문이다. 이사야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아, 폭풍우에 휩싸여 위로를 받지 못하는 곤고한 도시여.”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곤고한 도시여 내가 돌로 건축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청록색 돌로 너를 세우며 남보석으로 네 기초를 세우리라. 내가 홍보석으로 네 홍벽을 만들고 빛나는 보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며 네 모든 성벽을 보석으로 만들 것이다.

도시의 각 부분, 홍벽, 문, 기초가 어떻게 특정한 보석과 동일시되는지 주목하십시오. 내 요점은 그 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이 보석의 관점에서 묘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돌들을 묘사하면서 여기 11절과 21절까지 이어지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19장부터 21장까지 기초 위에 있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돌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든 구체적으로든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자신을 대표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발견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곳에서 지체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성전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건축 돌이요 건축 벽돌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묵시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돌들은 아마도 하나의 정확한 일치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암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만, 또한 지금의 건축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신부 성전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된 이사야 54장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는 흥미롭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모든 나라의 족속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합시키는 것처럼 보이는지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그 성의 12개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그 기초는 12사도와 동일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제 John은 그렇습니다. 추측이 있었지만 요한은 어느 사도가 어느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데

관심이 없거나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어느 문으로 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것의 상징적 의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충실한 자들, 그리고 이제 그의 교회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걸쳐 온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봅니다. , 각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도들의 위에 세워졌느니라.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이며, 이제 최종적으로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며 기초와 문으로 구성된 성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가 이제 요한은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문을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돌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이스라엘 지파와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요한이 아마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 48장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에는 성문과 관련된 지파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건물이나 도시의 특정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미 언급한 것을 발견합니다.

흥미롭게도 에베소서 2장과 20-2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동일시합니다. 요한은 성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과 같고, 예수께서 모퉁잇돌이시며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일부로 건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다시 한 번 다른 신약성서 저술가들에서 사람들을 건물, 성읍, 성전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성전이나 건물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텍스트는 사해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사해 위의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그룹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우리가 쿨란 공동체 또는 사해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해 공동체에 의해 생산되었거나 최소한 가치가 있거나 보관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사해 공동체.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사해

두루마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1세기 유대교의 적어도 한 분파에 대해 조명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두루마리는 이사야서 54장과 11절과 12절을 포함하는 이사야서 주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을 때 흥미롭습니다. 쿼란 공동체는 이사야 54장 11절과 12절을 해석했는데, 문과 기초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 54장, 11절, 12절의 보석과 흥벽과 성벽 등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쿼란 공동체는 그들을 공동체의 창립 구성원, 즉 공동체의 창립 멤버, 대제사장 등으로 명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사야 54장의 각 부분, 문, 기초, 흥벽 등을 취하고 있으며, 그 보석을 자신의 공동체의 창립 멤버와 동일시하십시오. 그래서 John이 그 텍스트를 알았든 모르든 간에 John은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54장에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쿼란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은 그것을 공동체의 창립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 문은 이스라엘 나라들, 즉 이스라엘 지파들과 동일시됩니다. 기초석은 현재 공동체의 기초 역할을 하는 열두 사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사야 54장에서 이상하거나 독특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사야 54장에서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자체의 창립, 특히 창립 멤버들과 그런 사람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도시 자체의 기초. 여기에서 요한이 언급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가 어떤 지파가 어느 문에 속하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13절에서 흥미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 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제안할 정도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로 돌아가서 에스겔이 성전의 바깥뜰과 안뜰을 보고 측량할 때 그가 따르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미안해요' 40장을 시작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의 바깥뜰과 안뜰을 측량할 때 요한이 여기서 하는 것처럼 동쪽에서 시작하여 북쪽과 남쪽의 입구를 측량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에스겔서 40장을 다시 언급하여 이곳이 다른 아님 하나님의 거처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마지막 성전의 성취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들의 방향은 동쪽, 북쪽,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에스겔서 40장에서 에스겔이 뜰 입구, 즉 성전 바깥뜰과 안뜰의 측면을 측량한 순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에스겔 48장에서는 실제로 도시에 대해 언급할 것이지만 그는 에스겔 48장, 30장부터 35장까지 다른 순서를 따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도시를 측정하는 본문이지만 다른 순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의 순서, 즉 동쪽, 그 다음 북쪽과 남쪽, 마지막으로 서쪽은 에스겔서 40장의 안뜰과 바깥뜰을 재는 에스겔의 순서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것은 종말의 도시 슬래시 사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단지 새예루살렘 신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예루살렘 신부도 성전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예상한 마지막 성전의 최종 성취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이사야 54장이고, 이사야 54장이 역할을 하는 다른 곳은 아래 21절인데, 그 12문은 12진주였습니다. .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큰 바다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왜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금을 계속해서 언급합니까?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금이 성전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금의 거리를 가짐으로써, 성을 정금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심지어 15절의 금 잣대를 통해서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즉, 이제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창조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15절의 측량 행위는 다시 에스겔서의 뒤를 따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읽고 천사가 측량 행위를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에스겔이 요한이 분명히 언급한 성전을 측량하는 반면, 흥미롭게도 요한은 다른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2장에서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측량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스가랴 2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장에서 측량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루살렘과 성전 이미지를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로 병합하여 새 예루살렘 신부 백성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른 두 가지 기능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새 예루살렘의 구성이나 모양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더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그 도시가 네모난 사각형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암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초기 역사가들은 바빌론을 네모난 정사각형 모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7장과 18장, 즉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대체된 음녀 바벨론 사이의 대조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네 개의 정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라는 개념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42장 15절과 20절, 45장과 2절에서는 성전을 정사각형으로 묘사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역에서는 성전과 제단, 시은좌의 다른 특징들도 정사각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를 정사각형으로 묘사함으로써 이것은 요한이 한 가지 이상의 것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한 예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사각형으로 묘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벨론, 17~18년의 로마, 그리고 지금의 새 예루살렘 신부 사이의 대조를 더욱 끌어내기 위해 바벨론을 묘사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정사각형

성전과 정사각형, 아마도 제단과 속죄소라는 특징을 암시함으로써 이는 새 예루살렘 신부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암시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에스겔의 마지막 성전의 성취입니다. 이 묘사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16절에서 발견됩니다. 거기서 그는 그 도시가 정사각형처럼 배치되어 있고 그 너비만큼 우리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막대로 그 도시를 측량한 결과 12,000 스타디온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고 넓고 높다는 그 언어는 열왕기상 6장 20절의 언어를 거의 그대로 반영합니다.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6장 20절을 보면 19절부터 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더라.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같다는 말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묘사하는 열왕기상 6장 20절에 대한 고의적인 암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성전 성취이다. 그것은 역사 전반에 걸쳐 성전의 형태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성취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 백성, 그의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성전 백성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묘사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몇 가지 건축학적 특징과 다른 돌들, 돌 이미지를 살펴보고 22장까지 이어지는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 새예루살렘 신부성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28과 요한계시록 21장 새 창조와 신부 새 예루살렘입니다.